

가자지구 굶주림 한계 넘었다...북부 이미 전면적 기근

통치 주체 없어 공식 기근 선언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 3만5천명 육박...인공부두 설치 지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쟁통에 최소한의 식량조차 끊기면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인 기근에 빠졌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5일 밝혔다.

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북부에는 전면적 기근이 발생했으며, 이는 남쪽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매케인 총장은 이러한 진단이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것은 공포다. 지켜보기 매우 힘들다.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전이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 북부에 본격적인 기근이 닥쳤다고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아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가자지구는 지난해 10월7일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과 봉쇄로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쟁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굶주림 정도가 세계적인 식량 표준 지표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규정한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관측이 속속 나오고 있다.

IPC는 식량 위기의 단계를 ‘정상-경고-위기-비상-재앙-기근’ 등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기근’ 단계는 한 지역에서 전체 가구의 최소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어린이 최소 30%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으며, 1만명당 2명이 매일 명백한 굶주림 혹은 영양실조, 질병의 영향으로 사망할 때 해당한다.

앞서 미 바이든 행정부의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장도 지난달 미국 관리 중에는 처음으로 가자 북부에 기근이 이미 발생했다고 선언했다.



7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과 전문학적 재산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량조차 끊기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생존 위협에 빠졌다. 사진은 가자지구에서 한 어린이가 식량배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가자지구의 굶주림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통치 주체가 불명확하고 정확한 통계를 얻는 것이 어려워 과거 소말리나 남수단 등에서 이뤄졌던 것과 같

은 공식적인 기근 선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IPC는 지난해 12월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를 분석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최근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또 IPC와 WFP 등 국제기구가 기근 진단을 내리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선

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정부 당국과 유엔의 몫으로, 가자지구에는 이를 수행할 통치 주체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여러 구호 대원과 전문가들은 기근 선언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자지구의 굶주림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육로가 막힌 가자지구에 바닷길로 지원하기 위해 짓고있는 임시부두도 약천후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고 미 CNN 방송 등이 이날 전했다.

부두 건설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각종 등 약천후로 인해 현장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으며, 인근 이스라엘 아시도드 항구로 이동해 조립 작업을 우선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으로 인한 가자지구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가 최소 3만4천544명에 달하고 부상자 수는 7만7천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바다사자가 점령한 美 샌프란시스코 부두

멸치떼 쫓아 1천여마리 운집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15년만에 가장 많은 수의 바다사자가 몰려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관광명소인 피셔맨스 워프 지역의 ‘39 부두 (피어 39)’ 항만장인 쉼터 찬드르는 이곳에 나타난 바다사자의 수가 1천마리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주된 먹이 중 하나인 앤초비(멸치과)의 작은 물고기) 떼를 따라 많은 바다

사자가 이곳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찬드르는 설명했다.

그는 “이전 모두 먹이와 관련해 벌어진 상황”이라며 썩지기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채널 제도로 이동하던 바다사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9 부두에서는 규모 6.9의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일대를 덮쳤던 1989년 처음 바다사자가 목격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바다사자가 모여들면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다.

/연합뉴스

시진핑 “中 투자 환영, 프랑스와 관계 새 지평”

5년여 만 유럽 순방...방문국과 혁신 협력 강화

유럽 순방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에 기고한 글을 통해 “프랑스와 다른 국가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자 기고문에서 “중국은 세계에 더 많이 개방하고 프랑스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우리는 중국의 제조업 분야를 완전히 개방했으며, 통신과 의료, 기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녹색 혁신을 바탕으로 재산업화를 추진시키고 있고 중국은 신물질 생산력(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혁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녹색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프랑스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가 수립되면서 동서 간 소통의 다리가 건설됐고, 국제 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었다”며 “중국은 프랑스와 협력, 양국 수교의 정신을 계승해 양국 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프랑스 및 국제 사회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과 프랑스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날 오후 프랑스에 도착해 몇새 간의 유럽 3개국(프랑스·세르비아·헝가리)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모두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이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 등 3개국 방문에 나섰던 2019년 3월 이후 5년여 만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 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 내 유군들을 끌어안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지난달 이례적 폭우로 143명 사망

지난달 파키스탄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140명 이상이 사망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기상청은 “지난달 강우량이 59.3mm로, 평년 평균(22.5mm)의 약 3배에 달했다”며 “이는 1

961년 이후 가장 습한 4월”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발루치스탄주 강우량이 평년 수준을 45%,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가 137%를 초과했다.

이처럼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라 말릭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 대변인은 지난달 낙뢰와 주택 붕괴 등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많은 비와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도 큰 피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례적인 많은 비가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기후 변화는 우리 지역의 불규칙한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달은 평년과 같은 수준의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지치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